

‘별들의 잔치’ 깜짝스타 누가될까

오늘 광주서 올스타전



올해 프로야구 ‘별들의 잔치’는 25일 광주에서 열린다. 과연 올해는 누가 깜짝 스타로 탄생할지 관심을 모은다.

올스타전은 1986년 이후 2000년 한 해를 빼면 해마다 한 경기씩만 열렸다. 이 때문에 평소 기량과 상관없이 이날 컨디션에 따라 누구든 미스터 올스타를 노려볼 수 있다.

다만 역대 올스타전 MVP를 살펴보면 투수보다는 타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투수는 대개 길어야 2-3이닝만 던지고 마운드 내려가기 때문에 승부에 직결되는 활약을 펼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는 베스트 10에 뽑힌 김광현(SK)과 윤석민(KIA)이 각각 이스턴리그와 웨스턴리그를 대표해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송은범(SK), 류현진(한화), 송승준(롯데) 등이 이어 마운드를 책임지며 15년 만에 투수 출신 미스터 올스타에 도전한다.

타자 중에서는 홈런타자가 MVP가 되기 쉽다. 아무래도 안타보다는 홈런이 MVP 투표를 하는 기자단에 강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이다.



〈최희섭〉 〈윤석민〉 〈이대호〉

올해 올스타 타자 중에서는 홈런 타자로 분류되는 이대호, 가르시아(이상 롯데), 김동주(두산), 최희섭(KIA), 클리프 브룸바(히어로즈), 이범호(한화) 등이 힘있는 타격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홈런 한두 개를 날리며 소속 팀마저 승리로 이끌면 올스타전 MVP는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고 할 수 있다.

‘타격기계’ 김현수(두산)를 비롯해 김주찬, 박기혁, 홍성흔(이상 롯데), 신명철(삼성), 박용택(LG), 강동우(한화) 등 정교한 타격 솜씨를 가진 이들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한 경기에만 집중력 하며 타격에 임한다면 이들도 충분히 홈런과 장타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박태환 결전지서 첫 훈련 2009로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박태환 선수가 24일 오전(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 포로 이탈리아로 메인수영장에서 열린 첫 공식 훈련에 참여해 스타트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상욱 버디사냥... 9언더파 단독선두

PGA 캐나다오픈 1R

나상욱(26·타이플리스트)이 미국프로골프프(PGA) 투어 RBC 캐나다오픈(총상금 500만달러) 1라운드에서 단독 선두에 나섰다. 나상욱은 24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크빌의 글렌에비 골프장(파72·7천222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보기 없이 버디만 9개를 몰아치며 9언더파 63타를 기록했다.

공동 2위인 레티프 구센(남아공), 조 듀린트, 스콧 버플랭크(이상 미국)에 2타 앞선 나상욱은 PGA 투어에서 첫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10번홀(파4)에서 출발한 나상욱은 전반에는 버디 2개로 숨을 고른 뒤 후반 9홀 가운데 무려 7홀에서 버디를 뽑아내는 맹타를 휘둘렀다.

비로 경기 시작이 8시간이나 늦어진 탓에 일부 선수들은 1라운드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 재미교포 앤서니 김(24·나이키골프)은 두 홀만 치러 모두 파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가 일몰로 중단됐고 18홀을 모두 마친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은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타를 줄여 3언더파 69타, 공동 17위에 올랐다. 위창수 역시 1라운드를 2언더파 70타로 마치며 공동 23위에 포진했다. /연합뉴스

배구 심판 강습회

송원여상서 27일부터

광주시배구협회(회장 고광삼) 심판기술지도 강습회가 27일부터 10일간 송원여상고 체육관에서 열린다.

광주시배구협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강습회는 지도자 연수를 통해 학교 배구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또한 심판연수를 통한 자질 높은 국제심판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강습회에는 전국 초·중등 교직원 40명과 심판(A·B·C급) 60명 그리고 광주시육상팀 지도자 60명 등 총 160여명이 참가한다.

배구기술지도·심판 등 직무연수는 하루 6시간씩 10일간, 심판자격 연수는 하루 8시간씩 6일간 실시된다.

강습회 첫 날은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의 특강이 있으며 조영호 대한배구협회 부회장·이춘표 대한배구협회 전무이사·이재화 광주시배구협회 전무이사 등이 강사로 나선다.

고광삼 회장은 “이번 강습회를 통해 학교체육으로서 배구가 더욱 활성화 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심판들의 수준 높은 배구경기 운영과 자질 향상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 신광중 대통령기 정구 4연패

광주 신광중 정구팀(사진)의 연승행진이 계속 되고있다.

신광중은 24일 경북 문경시민정구장에서 열린 제47회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 여자부 결승에서 전남 대덕중을 2-0으로 꺾고 우승, 지난 2006년부터 4년 연속 대회 정상 자리를 굳게 지켜오고 있다.

또한 신광중은 올해 전국소년체전(2연패)·동아일보기·장원배(4연패)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출전하는 대회마다 우승을 거

머쥐면서 전국대회 4관왕을 차지했다.

신광중은 이날 결승(2복식 1단식)에서 김이주·박혜연(이상 3년) 조가 대덕중 황수미·곽초희 조를 2-0으로 가볍게 누르며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 열린 단식에서는 지난 소년체전 최우수선수였던 김지연(3년)이 오현지를 3-0으로 꺾고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신광중은 23일 열린 조 예선에서 경북 문경시중을 2-1, 순천여중을 2-0, 강원동해중을 2-0으로 각각 이기고 조 1위로 준결승에

올랐다. 준결승(24일)에선 경기도 고색중을 2-0으로 제치고 결승에 올랐다.

신광중의 무서운 연승행진은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 뿐만 아니라 체육인 출신 노치권(61) 교장과 학부모 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성수(56) 감독·김현순(47) 코치의 과학적인 지도력도 한몫했다. 또한 국가대표 출신 이경천(63)씨의 실전훈련도 큰 도움이 되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생활 게시판

무음

▲임병형씨 별세 정구·남규·지호·청규·귀자씨 부친상=발인 26일(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7분향소. 062-231-8907.

▲김유빈씨 별세=발인 26일(일)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이재천씨 별세 진의·유지씨 부친상=발인 25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곽선욱씨 별세 우상·인례·인숙·인자·명숙·희숙씨 부친상=발인 25일(토) 학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최중순씨 별세 이인형·은형·두형·지형·신숙·신자씨 모친상=발인 25일(토)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김애순씨 별세 박중수·종영·종기·병수·중순씨 모친상=발인 25일(토)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박명혜씨 별세 김승곤·상곤·종화·대은씨 모친상=발인 25일(토)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대한민국 중심방송

CBS

노컷뉴스는 CBS와 함께 만드는 무료 종합일간신문입니다

뉴스전화 : 02-3779-8008

RADIO

가톨릭방송을 전교로 확산 시키기

CBS 99.9MHz

060-600-1031

STV